§교회목표 §
1. 천국시민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8년 표어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 9:35)

†행 동 지 침†
1.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2.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3.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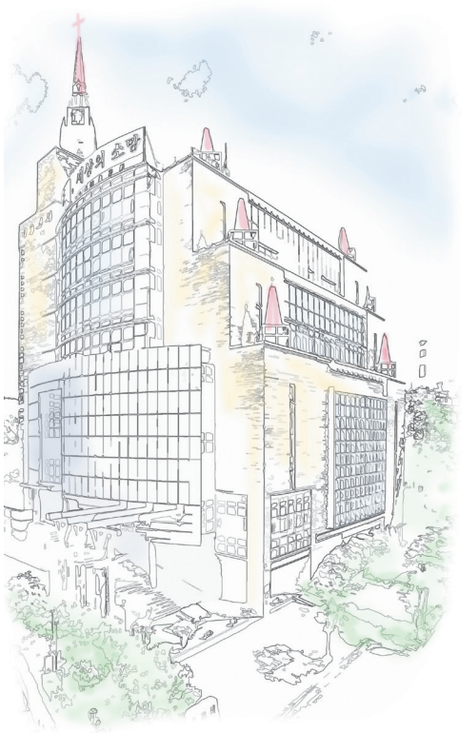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여호수아서 강해

기브온의 사람들 II

(여호수아 9:1~27)

이종윤 원로목사



Ⅱ. 과오의 결과

기브온 백성들은 속이기 위해 오래 준비했을 것이다. 반면 이스라엘은 얼마나 오래 그들의 요구를 심사숙고하며 조사해 보았을까? 여호수아는 곧 그들과 화친했다고 했다(9:15).

3일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언약에 매어 그들을 죽이지 못했다(19, 20절).

후일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수많은 기브온 백성을 죽였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잘못된 것이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편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 잘못은 사울이 했는데 그 심판은 다윗 때에 행해졌다. 사울의 피 흘린 대가를 다윗 때에 기근으로 치르게 하신 것이다. 다윗은 다시 기브온의 남은 백성과 합의하여 사울의 집을 심판했다.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기브온 사람들을 야곱의 아들들이 속인 적이 있었다(창43:14 - 27).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이다. 그때 세겜 사람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에게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면 할례를 받으라고 권하고서는 할례를 받아 누워있는 세겜 사람을 급습해서 다 죽여버렸다. 남을 속이고 죽인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 일이 있은 지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에게 속은 것이다. 남을 속이면 언젠가는 자기도 속게 되어 있다. 남을 억울하게 하면 자기 후손이라도 억울함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했다. 억지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파경에 이르게 되자 주변에서는 이혼을 하라고 충고한다. 이혼이라는 편리한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아픔과 상처는 남는다. 자식에게, 가족들에게, 친지와 이웃에게, 그리고 새로운 결혼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생활에서 그 쓴 맛은 두고두고 맛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범사에 신중해야 한다.

Ⅲ.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기브온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속이고 평안히 살기를 바랬지만 그들은 그 일로 이스라엘 집의 노예가 되어 고통을 받게 된다(9:21).

놀라운 것은 27절 말씀이다.

"그 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27절).

그들은 하나님 집을 섬기는 노예였다. 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길 때도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섬겼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을 속이고 화친을 청했던 것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일 때 한 말을 기억하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9:9 - 10).

이 점에서 기브온 사람들을 기생 라합과 비교할 수 있다. 기브온 사람들은 기생 라합처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수2:11)은 없었으나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들은 대로 믿었고(수9:24)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합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과 원수의 나라(자기 조국)을 버렸고 기브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 위해 자기의 동맹관계를 깨뜨렸다.

또한 기브온 백성들은 한 번 결심한 것을 위해 끝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편에서 충성했다. 그 결과 기브온은 번영을 누렸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수를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셨다. 그 땅이 나누어질 때 기브온은 아론의 집에 주신 도시 중 하나를 취했다. 그 도시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특별한 곳이다. 400년 후 다윗은 그 도시에 장막을 쳤다. 제단과 제사장들이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 왕의 신복 중 한 사람이 기브온인이었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소제를 기브온에서 드렸다. 기원 전 500년경 스룹바벨 시대에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포함돼 있었다.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 중에도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 중에 있었다.

결 론

라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녀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듯이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다. 기브온 사람들이 비록 거짓말을 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사람들과 화친하려 했던 사람들이었다.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었으나 점차 하나님에 대해 듣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까이 하다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일시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기브온을 부르셨듯이 우리도 불러 주셨다. 악을 악으로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과감히 악을 끊고 새 길을 찾아야 한다. 한편 참을 참으로 알게 되었을 때 그 길을 택해야 한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자.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부서	일정	장소	주 제	교역자
청년1부 청년2부	8월 13일(월) -15일(수)	아가페타운	"치유하시는 하나님" (열왕기하 20:5)	심우진 목사
에바다부	8월 11일(토)	서울교회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9:35)	서명철 목사
장로 수련회	8월 14일 (화)	아가페타운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감우균·김연화1 김정애 송정윤 장윤식·이경옥 곽선자
김혜식 박동우·백승경 김성준·김선영 농어촌전도대
강애자 전용순 무 명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찬양예배 전 교회 회복 기도회

찬양예배 전 오후 4시 30분부터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회로 모이고 있다. 교회가 불같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찬양과 기도 뿐이다. 찬양과 기도는 사탄의 결박을 푸는 가장 큰 무기다.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란다.

편지왔어요

서울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김춘기 목사 (대진중앙교회)

8년전 제가 대진중앙교회에 부임할 때의 대진중앙교회는 미자립 교회였고, 교회의 부채가 상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려운 중에서도 부임하고 첫 노회 때에 자립 신청을 하였습니다. 교회가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지만 성도들과 고난을 함께 하기로 하고 자립교회로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대진중앙교회가 서울교회와 첫 인연을 맺은 것은 오정수 장로님과 최광성 장로님이 2015년 3월에 대진중앙교회를 방문하시고부터 였습니다. 그 때까지 4년 6개월 동안 열심히는 하였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기에 목회를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도, 목회도, 가정도 모든 것에서 힘에 지나도록 훈련과 연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교회의 농어촌 교회 후원교회로 선정이 되어 재정적인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해 여름 대진중앙교회로 많은 봉사자들을 보내 주셔서 이 지역에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첫 해에 선교봉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은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었고 지역이 변하는 모습을 보며 성도들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들을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올해도 봉사자들을 보내주셔서 섬김으로 결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예배에 59명이 예배를 드렸고, 2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올해에 6명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주민들 중에 대진중앙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하신 분들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서울교회와 헌신하는 주의 봉사자들을 통하여 일하셨음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서울교회를 만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모든 봉사자들께서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셨던 모습들을 기억하며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주 서울교회 홈페이지를 접하며 교회 소식을 살피고, 특히나 고난 가운데 있는 서울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저는 서울교회 홍해작전 주제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으로 기도제목을 정하고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서울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마다 서울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열쇠를 주옵소서. 맬 수

있는 권세와 풀 수 있는 권세를 서울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서울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마다 가정을 세워주옵소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천국 열쇠를 주옵소서. 맬 수 있는 권세와 풀 수 있는 권세를 서울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부족한 자를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낙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최후 승리를 얻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로, 물질로, 손과 발로 뛰어주신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대진중앙교회가 이 대진 땅에서 가장 칭찬 듣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더욱 성장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18 농어촌전도 – 의료선교를 다녀와서

찾아가는 서울교회 의료선교

정현구 집사 (의료선교팀)

2018년 7월 15일 주일 아침 7시 저희 의료선교팀은 고성에 위치한 대진 중앙교회의 의료선교를 떠나게 되었다.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4년째 고성에 의료선교를 갈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24명의 선교팀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3시간 여만에 도착한 대진중앙교회는 친근하게 느껴졌고 목사님을 비롯하여 대진중앙교회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11시예배를 그곳 성도들과 함께드렸는데 대진중앙교회 김춘기 목사님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예배 후 정성스럽게 준비해주신 점심을 빨리 먹고 진료에 알맞은 자리와 의료기기들을 배치한 후 곧바로 진료에 들어갔는데 외과, 한방, 통증의학, 영상의학, 진단검사의학, 피부과, 내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치과, 약국, 간호팀 등 마치 종합병원을 옮겨 놓은 듯하게 활발하고 다양한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 과 진료를 하시는 의료진뿐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시는 권사님, 집사님들과 청년부 학생들도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평소에 교회를 다니시지 않은 분들도 매년 『찾아가는 서울교회 의료선교』를 기다리신다고 하였습니다.

60 여명의 주민분들은 각과 진료뿐 아니라 혈압 체크, 당뇨검사 및 복부 두경부 초음파를 통한 세밀한 진단을 받았고 영양 수액과 한방침 및 통증주사를 맞으시고, 구충제와 영양제도 받아 가시면서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김춘기 목사님은 대진 중앙교회가 초창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서울교회 의료 선교팀과 전도팀이 전도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풍성하게 채워주심에 감사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서울 교회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같이 기도 하시겠다는 목사님의 기도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며 고성을 떠나오며 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김순진 집사(축호전도팀장)

2018 농어촌 전도를 위해 출발하는 날 아침, 서명철 목사님과 오치열 장로님 그리고 모든 전도대원들이 일찍부터 나오셔서 버스와 트럭에 짐을 싣고 출발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울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환란 가운데에서도 농어촌 전도대를 대진중앙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수1:9)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부족하여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해 나갔습니다. 올해 축호전도팀은 3개 조로 각 조에 조장과 모세선교회 집사 1명과 권사, 집사들로 조원을 이루어 마을을 세구역으로 나눠 축호전도를 했습니다.

올해로 4년째 그곳으로 전도를 가다보니 마을분들이 기억하고 반겨주셨습니다.

주일에 의료선교팀이 먼저 봉사해주신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첫째 날 만난 유소치(70대) 어머님은 얼마 전에 셋째 아들(51)을 잃으셨다고 울면서 얘기 하셨습니다. 네 아들 중 첫째와 막내는 절에 다니고 둘째만 교회 다닌다고 하셔서 어머님도 꼭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믿고 슬픈 마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기도해 드렸습니다. 둘째 날 만난 이종덕(85) 어머님은 4년째 파마도 하시고 수요예배와 잔치에도 오시는데 결신을 안 하셔서 안타까움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오전에 만난 백학수(71)씨는 부인이 목 디스크 수술하고 입원해 계시는데 수요예배와 잔치에 오시라고 했더니 수요예배에 오셔서 결신하고 목사님 안수기도도 받으셨습니다. 믿음이 잘 자라고 그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3일간 축호전도팀 3개조가 112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요예배에 16명이 새로 나오시며 2명이 결신하였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기쁨으로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잘 자라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의료선교팀, 축호전도팀, 이·미용팀, 만나팀, 교회학교팀, 지원팀까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전도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 정

■ 개업: 9교구 오주명 집사 "닛시레" 남양주시 금곡동 석실로 650번길 52-25

■ **금주의 식사 :** 달걀쇠고기장조림 열무김치
이철민 집사 이종균 권사
(범사에 감사하며)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에바다부, 청년1, 2부 여름수련회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 되게 하옵소서.

2. 각종 송사건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진실하고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3. 우리나라에 거짓과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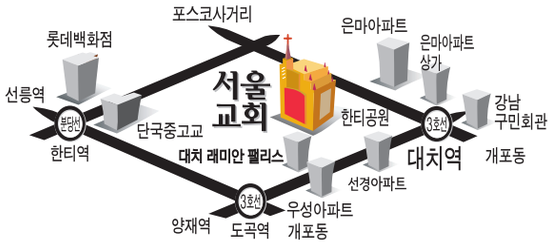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7월29일	주일	사 4–7		신 1–3	
7월30일	월	사 8–10		신 4–8	
7월31일	화	사 11–16		신 9–14	
8월1일	수	사 17–22		신 15–22	
8월2일	목	사 23–26		신 23–28	
8월3일	금	사 27–30		신 29–34	
8월4일	토	사 31–35		수 1–7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5시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